

웨신총회(서울) 제110회기 김안식 총회장 재추대 북한교회회복, 협법개정위원회 및 구성 등 안전 가결 처리



▲웨신총회 제110회기 정기총회



설교 웨신대 총장 배광식 목사 웨신총회장 김안식 목사 직전총회장 김현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서울) 총회(총회장 김안식 목사, 총무 김복래 목사)가 지난 9월 8일 “섬김의 본을 따르는 총회” 주제로 제1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부 개회예배, 2부 성찬식, 3부 회무 처리 등을 가졌으며 한편 신임총회장과 임원진을 구성, 2026년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비상했다.

부총회장 정성봉 목사의 예배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기도 부서기 김기출 목사, 성경봉독 행 2:1-4절을 고영전 목사(서경노회장), 설교자로 초청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웨신대) 총장 배광식 목사는 ‘부흥’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배 총장은 “목사는 항상 무릎을 꿇는 자여야 하며 목회자가 많이 있어야 많이 웃을 수 있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목회자가 옆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영적 진리를 강조했다. 특히 배 총장은 “웨신총회가 바른 신학 위에 기도도 부흥을 경험하고 아울러 웨신대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부흥하여 먼 훗날 우리의 눈물과 열정과 무릎으로 기도한 보람을 다 같이 누리자”며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국가사회도 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경기노회장 채완석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증경부총회장 마순덕 목사가 한국교회와 총회, 각 노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2부 성찬예식은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는 고전 11:23-2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만찬”

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집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떡과 잔을 나누며 거룩한 예식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분병/분잔 위원은 함금주 목사, 심순범 목사, 허송무 목사, 채완석 목사 등이 맡았다.

오찬에 이어 총회장 김안식 목사의 의장이 되어 진행된 3부 회무처리에서는 서부노회 인준현의 건과 웨신중앙노회 인준현의 건이 처리되어 총회산하 노회로 협력하며 활동하게 됐다.

신임총회장으로 109회기 총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섬겨온 김안식 목사(청주 월만한물교회)를 단독후보로 추천하여 만장일치 박수로 총회장에 재추대했다. 김 목사는 총회장 연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섬기는 리더십으로 총회와 총회원들을 섬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원은 부총회장 정성봉 목사(서울노회), 최돌이 목사(중부노회), 김복래 목사(웨신중앙노회), 최정수 목사(웨신대학노회) 등이 만장일치 선출됐고, 서기 허송무 목사(웨신대학노회), 부서기 심순범 목사(동서노회), 회록부서기 최혜순 목사(호남노회), 회계 김사라 목사(호남노회), 부회계 김은혜 목사(중부노회), 감사 하종우 목사(한서노회), 마순덕 목사(호남노회), 이영선 목사(수도노회) 등을 선임하는 등 새로운 진용의 임원진을 구성 발표했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통일이후

북한교회회복을 위한 7원칙(안동의 결의안과 제110회기 헌법개정위원회 구성 건(108/109회기 헌법개정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수의건 포함), 제110회기 교단발전위원회 구성 건 등이 가결, 처리했다.

테너 김현수의 봉헌 특송에 이어 축사로 나선 증경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웨신총회의 태동과 그간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웨신대 총장 배광식 박사가 총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것은 출가한 딸내미 집에 찾아온 친정아버지처럼 반갑다”고 환영하면서 “웨신대 강당에서 출범한 웨신총회가 향후 대학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win-win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직전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신임부총회장 최정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4부 폐회예배에서 신임총회장 김안식 목사가 고후 12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약함 속에 감추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신 이 나타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총회와 모든 교회위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총회장의 폐회선언문 낭독과 축도로 모든 회무를 마치고 성총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총회를 마치고 호남노회 김춘봉 목사는 총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향후 총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기도와 물질로 적극 섬겨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총회는 9월 23일 웨신대에서 체플을 인도하며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저스타임즈 cjntv(http://jtntv.kr)에서 영상편집 되어 방송을 하게 된다. 본 신문방송은 웨신총회와 정식 MOU 체결된 언론사이다.

예장(합동보수) 제110회기 총회장 이규필 목사 재선출 부총회장 임원 모두 유임, 신임총무 김관호 목사 선출



총회장 이규필 목사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 동천교회(이규필 목사) 본당에서 “극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요나”란 주제로 제1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이규필 목사를 재추대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대일 목사(증경총회장)는 현 총회장과 부총회장 임원 등을 유임시키고, 신임총무에 김관호 목사를 선출 발표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서인노회장 남궁열 목사의 기도, 서기 서재식 목사가 요나서 2:7-10절을 봉독하고 “극한 고난 중에 감사하는 요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규필 총회장은 목회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목회하는 가운데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고난도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가슴 아팠던 고난도 하나님께 얹어져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면 그토록 아팠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해결되 있었다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다.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의식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 의식에서 깨어난 후 며칠 사이에 바라고 원했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간의 어려웠던 일들과 해결되기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기뻐 해야 되고, 기도드리야 하는 것.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자신을 위축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의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한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격려했다. 사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힘이 있는 목회, 시련 중에도 큰 능력 있는 목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복했다. 이어 서기 서재식 목사가 광고를,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예식에서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의 집례로 경기증경노회장 조창래 목사의 기도, 전예희 부총회장은 고전 11:23-26을 중심으로 “성전의 의의”란 말씀을 선포하고 분병/분잔 위원은 김관호, 배영자 목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집례자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가 축도했다.

3부 이규필 총회장의 사회로 회무처리가 진행되었으며, 임원 선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대일 목사(증경총회장)가 호명함으

로 총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 부총회장 전예희 목사(성광교회), 서기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 부서기 천종록 목사(안락교회), 회의록서기 김주현 목사(빌라델비아교회), 부회의록서기 이해숙 목사(두손을모은교회), 회계 안갑훈 장로(금천시온교회), 부회계 강대섭 장로(평안교회), 등이 유임되고, 제110회기 신임 총무에 김관호 목사(세향교회)를 선출 발표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폐회예배를 진행하고 서경노회장 김주현 목사가 기도드리고, 이 총회장은 빌 4:6절을 봉독한 후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날 기념타올과 점심식사는 동천교회 이선영 목사, 백희숙 권사가 준비해 주었으며, 대접한 손길을 위하여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의 축복기도로 총대원 모두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만찬을 나누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신임총무 김관호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총회 발전을 위하여 총회장님을 보좌할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말씀과 기도와 영성으로 충만한 영적인 총회가 되는 게 소신이며, 또한 총회에 소속된 각 노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해 총회와 각 노회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총회 발전과 부흥을 위하고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목회자를 영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헌신을 다할 각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번 제110회에 설교 및 성찬식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방영하게 되었다. 제1방송 지저스타임즈 cjntv(http://jtntv.kr), 제2방송 크리스천포토저널 cpj tv(http://cpj.kr) 매일 24시간 언제든지 열어서 시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축 예장 합동보수 제110회 정기총회

주제 : 극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나(욥 2:7~10)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 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총 회 장	증경 총회장	부총회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종록 목사 안락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교회	이해숙 목사 두손을모은	안갑훈 장로 금천시온교회	강대섭 장로 평안교회	김관호 목사 세향교회

총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94(동천교회) ☎ (02) 496-0191

정론- 장로교 통합총회에 바란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한국 장로교의 총회!



1. 서론
-다시crossroads(갈림길)에선 한국교회

장로교 통합총회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현재를 대표하는 교단 중 하나이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된 이래, 통합총회는 신학적 전통과 제도적 질서를 지켜오며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었다. 복음 전파와 교육, 의료, 사회봉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다양한 사역 속에 통합총회의 발자취는 선명히 새겨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분명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뢰 상실, 다음 세대 이탈,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 교회의 분열은 한국교회 전반의 위기이며 동시에 통합총회의 과제이다. 이제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개혁만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세계 교회의 시각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각도에서 통합총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때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과정이다.

2. 역사적 각도- 교회의 전통과 개혁

한국 장로교회의 자람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개혁교회의 전통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절

저히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며, 신학교육을 통해 바른 신앙을 세웠다. 또한 장로정치는 평등한 제도 속에서 민주적 결정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훗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통합총회는 그 역사적 유산을 충분히 계승하고 있는가? 전통은 살아 있는 힘일 때 의미가 있다. 오늘날 교단 정치가 특정 인물과 세력 중심으로 기울고, 교회의 제도가 권력화될 때, 전통은 오히려 형식으로 전락한다. 역사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교개혁의 본질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실제 목회와 교단 운영 속에 구현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3. 사회적 각도 - 교회와 공공성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특권적 존재’로 인정받지 않는다. 과거에는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사회 발전에 기여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습 문제, 지도자의 도덕성, 재정 투명성 결여는 교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통합총회는 사회 앞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빈부격차, 세대 갈등, 환경 위기, 저출산과 가족 해체 등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 앞에, 교회가 성경적 가치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의와 평화, 생명 존

중과 창조 보전이라는 공적 가치로 나타나야 한다.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총회가 될 때, 교회는 다시금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될 것이다.

4. 세대적 각도 -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오늘의 한국교회 최대 위기는 다음 세대의 이탈이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회 밖으로 떠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화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의 질문과 갈망에 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합총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총회가 이 사명에 진지하게 응답할 때, 미래는 열리게 될 것이다.

5. 세계 교회의 각도 - 선교와 동역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불과 100년 남짓한 기간에 한국은 세계 선교사 파송국 2위가 되었고,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일방적 파송과 지원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와의 상호 동역, 문화적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 통합총회는 세계 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민 사회, 다문화 가정, 디지털 선교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세계 선교의 중요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협력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6. 신학적 각도 - 개혁과 갱신의 신학

장로교회의 뿌리는 신학적 정체성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은 목회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목회자들은 현실에 쫓겨 신학적 성찰을 잃고,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배우지 못한 채 신앙의 얇은 층에 머무른다. 통합총회는 신학과 목회의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단순히 제도적 행정 교단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과 연구를 주도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 신학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는 신학을 통해 본질을 지킨다. 이는 통합총회가 개혁교회 전통을 잇는 핵심 사명이다.

7. 결론- 새로운 길을 향하여

장로교 통합총회는 단순히 교단 운영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력의 상징이다. 역사와 전통 위에 굳건히 서되, 사회적 책임, 다음 세대 교육, 세계 선교, 신학적 정체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응답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통합총회가 자기 성찰과 개혁, 연합과 선교, 공공성과 교육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새 부흥의 길을 열어가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총회가 단순한 회무 처리의 장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선지자의 자리로 서야 할 때이다. 통합총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길 바라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헌법 수호 의지는 민주 정치의 시금석이다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이루도록



한국교회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스럽고, 가치(價値)의 상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하여 몸체가 송두리째 공중에 뜰려 올려지는 것과 같은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건 강하게 지탱하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침해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요동(搖動)을 겪지 않나 우려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소위 '내란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외부나 정치권에서 억지로 다른 차원의 재판부를 만들었으나,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는 위험 결정이 나오면, 특별재판부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상당히 겪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권력이 당장 힘이 세다고 하여,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강행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합헌성,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불안이 조성하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특별재판부'는 3가지의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

먼저 헌법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과 법관을 구성하는 것과, 어떻게 재판부를 꾸릴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또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정치인 등이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을 명령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 행정, 입법,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헌법 제104조 3항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이것도 위헌이 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도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하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한 권력이 있다면서, 이를 마치 서열화

는 발언까지 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는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면, '국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가를 위하여 바른길을 가고, 정당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처럼 헌법을 뛰어넘는 정치적 발상들과 일방적 개혁 주장은 오히려 국가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반 서민들은 작은 법률 하나만 어겨도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헌법조차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부당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헌법 체계가 한번 무너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까지 하였는데, 이는 권력의 남용이다.

국민들은 삼권분립이 이뤄져, 어느 한쪽 권력이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 권력은 삼권분립을 뚫었이 하여,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은 보장받는 것이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박종서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양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cpj5037@daum.net / jtnvcpj@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임원목사 박수영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후원으로 발행됩니다!

지저스타임즈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교회, 가정, 일터 위에 항상 부흥과 번창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cjtn tv는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료 및 후원으로 방송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은 오는 10월 24일이면 창간 2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 입어

오늘도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 언론사는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신문과 방송이 되기를 약속 드리며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저스타임즈 cjtn tv

이사장 박종서 목사 인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사무총장 류재현 장로

후원과 구독료 계좌

하나은행 : 758-910292-36807 정기남
국민은행 : 455-21-0339-406 정 기 남
계좌로 구독료 및 신문방송 선교 후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셔야 하며
문의 는 010-5468-6574 이 며 1 년 구독료는 50,000 원입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 esu s Ti mes
H.P 010-5468-6574 E-mail : cpj5037@daum.net /jtn
tvcpj@naver.com

예장 백석 제48회 정기총회 개최...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 주제로 교단·단체 김동기 예장백석 신임 총회장 취임... '내실과 부흥' 다짐



▲ 장종현 대표총회장에게 취임 축하패를 받는 김동기 신임 총회장



▲ 말씀전하는 총회장 이규환 목사

예장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지난 9월 15일,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교회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요한계시록 2:17)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전국 129개 노회에서 1,0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첫째 날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오우중 장로(부총회장)가 대표 기도를 드렸다. 이어 박태순 목사(회의록 서기)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장로찬양단의 특별찬양이 이어졌다.

이어 이규환 목사(총회장)가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마태복음 9: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교육, 선교, 치유와 봉사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과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인도와 이스라엘의 사레처럼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주의 생명신앙을 토대로 한 교육은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핵심이 된다"고 했다.

개회예배는 김진범 목사(직전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찬예식에 참여했으며 최낙중 목사(증경총회장)의 집례로 진행됐다. 최목사는 '주님과 하나된 우리'(마 26:26-2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이어서 축도했다.

제48회 예장백석 정기총회가 신구임원 교체식과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로 둘째 날 오전 회무를 시작했다. 총회장 김동기 목사는 취임 감사예배에서 교단 부흥과 세계 선교, 목회자 복지를 3대 중점 사역으로 제시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목사부총회장에는 이승수 양문교회 목사가, 장로부총회장에는 고기성 한국중앙교회 장로가, 사무총장에는 박종호 안양총신교회 목사가

총대 인준을 거쳐 당선됐다. 총무는 장형준 목사가 지명됐다. 백석총회는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인단 간접선거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50명의 선거인단이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선출했고, 총회는 이를 인준했다.

김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백석백인 1만 5천 운동본부"를 세워 일만여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겠다"며 "특히 교단 소속 교회의 75%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가 100명 이상 자립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혁주의 생명신앙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백석총회는 67개국에 76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김 총회장은 "총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단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선교사대회 개최, 아프리카 순방, 유지재단 가입 확대, 사랑의 집짓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회자 연금 제도 안정화도 약속했다. 그는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회 연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농어촌과 은퇴 목회자도 함께 열매를 나누는 연금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교단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확립돼야 한다"며 "하나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백석총회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진리총회 제110회기 총회장 장한국 목사 재선임 대한노회 제35회기 정기노회에서 총회와 노회 임원을 통합 유임됐다.



▲ 제110회 진리총회 축하합니다



▲ 회무처리)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는 지난 9월 23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

왕시 계원대학교로 소재 주사랑교회 본당에서 제110회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1부 개회 예배를 드린 후 임원 선거에 들어가 총회장 장한국 목사를 재선임하고, 임원들도 재선임되어 110회기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서기 김종천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에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 인도자가 성경 요 17:17절을 봉독한 후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케 하소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

쳤다.

2부 성찬식에 이어 3부 회무처리 는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부회계 이미정 목사가 기도, 회의록서기 김진환 목사가 총대 호명 결과 참석 수 과반이 되었기에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순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임원 선거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제110회기 임원 선출은 총회장 장한국 목사(유임), 서기 김종천 목사(유임), 부서기 전상열 목사(유임), 회의록서기 김진환 목사(유임), 회계 김정미 목사(유임), 부회계 이미정 목사(유임), 감사 유순옥 목사(유임) 등이다. 제110회기 총회 임원은 대한노회 제35회기 정기노회의 임원을 겹치게 되었으며 모두가 유임이다. 덧붙이면 총회 서기가 노회 서기를 겹치한다고 했다.

4부 폐회 예배는 총회장 장한국 목사 인도로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가 있는 후 진리총회 제110회기, 대한노회 제35회기 정기노회를 통합하여 동시에 총회와 노회를 하나님의 성 중 마쳤다.

예장 고신 긴급 임원회 열고 규탄 "매주 설교하는 목사 '도주 우려' 구속, 전체 교회 모독"



▲ 손현보 목사가 지난해 제74회 고신 총회에서 발언하던 모습

- 구속은 정치적 사건, 목사 개인 넘어, 고신 교회 전체 정치적 탄압 신호탄
- 비리 아닌 정치적 발언 빌미로 구속, 언론-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집행
- 부당한 공권력 무도한 판단과 행위, 교회 항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해, 예장 고신총회 임원회가 9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고신 교회의 정치적 입장은 극진보와 극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단체와 언론과도 무관하다"며 "이번 고신 목

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인을 넘어, 고신 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고신 총회 임원회는 "고신 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매주 설교하는 고신 교회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 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고신 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를 항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고신 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

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신사참배 거부운동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범죄자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칼의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헌법과 법률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고신 총회는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구체적 도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장 통합 제110회 정기총회 개최... "용서, 사랑의 시작"



▲ 예장통합총회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 제110회 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열리는 가운데, 총회 첫날 개회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정훈 부총회장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장 7절, 엡 4장 31-32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는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본질을 놓친 것인데, 사랑보다 율법이 앞선 데 있다"며 "마태복음에선 마지막 때엔 율법이 성하므로 사랑이 식는다고 나왔다. 곧 회칠한 무덤처럼 탐욕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현상도 이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이어진 뒤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가 마무리됐다.

예장통합 제110회 총회보고서에서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교세통계가 보고됐다. 이 문서에 실린 예장통합 통계위원회(위원장 이필산 목사)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인수는 219만 919명으로 전년도

(220만 7,982명) 대비 1만 7,063명(-0.77%) 감소했다. 2015년(278만 9,102명) 이후 10년 만에 지난해 전체 교인수는 59만 8,183명 준 수치다. 교회수는 9,446개를 기록해 전년도(9,473개) 대비 27개(-0.29%) 줄었다. 전체 목사수(은퇴, 유학, 무임 포함)는 2만 3,020명을 기록해 전년도(2만 2,510명) 대비 510명(+2.27%), 사무 목사수는 1만 6,998명으로 전년도(1만 6,870명) 대비 128명(0.78%) 증가했다. 특히 2015년(1만 8,699명) 이후 10년 만에 지난해 전체 목사수는 4,321명 늘었다. 장로수는 3만 5,865명으로 전년도(3만 5,137명) 대비 728명(+2.07%), 권사수는 20만 7,161명으로 전년도(20만 3,019명) 대비 4,142명(+2.04%) 증가했고, 안수집사는 8만 1,844명으로 전년도(8만 2,054명) 대비 210명(-0.26%) 집사수는 51만 5,763명으로 전년도(52만 3,482명) 대비 7,719명(-1.47%) 줄었다.

축

설립 17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장로장립·권사 임직식

~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

· 일시 : 2025.10.18(토) 오전 10:30

· 장소 : 평안교회당

담임목사 장승현

평안장로 이현영

시무장로 윤철호

시무장로 장래욱

시무권사 이시연

김정복

이민자

박병옥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362-6
TEL. 041-356-0644, 010-9027-9712

▶계시록 15장 강해(78)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고 병도 슬픔도 없다

(지난번에 이어서)

1.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와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는 그의 종들

하늘나라에는 당연히 저주가 없고 병이나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계 14:1]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의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다 이루어진 후,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종말까지 많은 헌신과 많은 열매 맺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 중, 하늘나라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面前)에서 가장 앞선 자,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뵈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십사만 사천입니다.

즉,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는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면대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순교한 성도들이며, 이후에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한 주의 종들과 일꾼들, 의인의 영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훌륭한 종들, 아벨로부터 예녹, 모세,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의 열두 사도를 비롯하여 한량없이 많은 훌륭한 주의 종 중 환란 날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은 '십사만 사천'의 영광이 최고로 앞서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들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며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거기에는 마귀나 악한 영의 역사가 없기에 밤이 없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신다고 하시는 것은 주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무한대의 하늘나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추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선 3.4절에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십사만 사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십사만 사천이 지배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총으로 지배하고, 또 이들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층이 있다는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에는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십사만 사천의 영광이 가장 앞선 영광으로, 다른 영광에 비하여 앞서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에 비해 가장 앞선 영광으로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 22:6~7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1.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은 [계 1:1]에서 말씀하신 요한 계시록을 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계시를 주셨고, 이와 같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의 내용 역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란이 시작하기 전, 종말의 일곱 금춤패 교회 세우셔서 이기는 자를 배출시키시는 일부터 주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을 환란, 그리고 그때 쓰임 받게 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성과 그 일들, 또 이들에 의하여 미혹 받는 자와 반대로 이들의 말을 거부하고 결국 순교하는 자와 십사만 사천의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러한 환란이 끝나고 있게 되어 질, 주의 재림과 그때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한 자들, 아 마겔돈 전쟁과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

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무저갱에 갇히는 마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과 이후 복을 받는 모든 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되어 질 일들이고,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반드시 속히 되어 질 일들이며,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는 종말의 일곱 금춤패 교회를 세우고 이기는 자를 배출시키는 것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종’은 어느 종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종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실제 [마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표징’으로는 벌써 환란이 시작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430년이 걸린 것과 같이 잠시 늦어질 뿐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채워지면 곧 환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환란이 늦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잘못 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순교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예수 안에서 순교한 자들을 호령하여 첫째 부활하게 하신 뒤, 그들을 데리고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3.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데리고 오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들은 바로 순교한 자들이며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로서 이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며, 이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목양칼럼 36

신실한 성도의 신부에 대한 칭찬

아가 강해(58) “아 7:1~3”

지번호에 이어서

지난 한 주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되었기에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과 주의 기울이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했기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를 4가지 영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의 4가지 영광은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밝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신부가 되어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리고 호도 동산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한 주간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아 6: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목회자야카 데미에 참석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강화도 합허동천 캠핑장으로 아우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하고 마니산으로 등산을 하러가는데 저는 짐을 지킨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캠핑장에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은혜 받았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를 들으며 눈을 감았는데 제 마음은 어느새 시온교회 성도님들에게 움직여서 너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한분 한분을 떠올리며 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났는가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제 마음이 아 6: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 제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 6:13“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는 에루살렘 여자들의 환영과 존경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권위자들이 조동하는 말인 아 6: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에 대한 진실한 성도들의 변호입니다.

아 7:1절입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들 동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평범한 여자였던 술람미 여인이 진실한 성도들의 눈에 이제 귀한 자의 딸로 보인다는 것은 신부의 신분이 왕과 하나가 되었기에 존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속한 신분과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신분은 이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며 하늘에 속한 신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건 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된 신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민권은 그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철이 든 후에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기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때가 되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의 눈에 귀한 자의 딸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귀한 자의 딸로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신부의 발에 대해 칭찬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부는 변영과 존귀를 상징하는 자신의 신 곧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다 벗었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발에서 신을 벗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

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신발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신을 벗고 예전에 신던 자기의 신을 도로 신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혜로 우리의 신을 벗기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신 경회를 토대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의 연단을 통해 변영과 존귀를 상징하는 자 신의 신 곧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다 벗었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렘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금 신부가 신은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기에 아름답습니다.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신부가 신은 신발인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이 왔다면 이제 주님의 의로 인해 부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생명과 형통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은 발을 아름답게 하며 땅의 더러움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면 발이 상하고 금방 더러워지듯이 복음의 신을 벗는다면 땅으로 인해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같이 아름다운 다음을 드러내야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발에 신발을 신음으로, 곧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같이 아름다운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발에 복음의 신을 신지 않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더럽혀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JTN TV 부사장



빠르고 신속한 우수 기업 선정 한국의 전 협 동 조합

1,단순 장례식

150 만원

2, 3일장 기본 장례

240 만원

3, 3일장 고급 장식

28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조합원 지원 도우미 4명서비스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렴과 대렴 입관
고급리무진 and 황초봉인함 매장시-횡대
화장시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조합원 지원 도우미 4명서비스

필요시 선택 사항



남 상복 1set 6만원

여 상복 1set 2만원

[별도비용]

시설의 발생비용

제단 장식

영정제단장식 빈소와 환경에 따라 선택

전문 도우미

장례일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배정

남 상복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종교,
가족환경에 따라 선택

여 상복

종교, 가족 환경에 따라 선택

전국 : 1644-2542

HP : 010-3788-1130

합동 김종혁 총회장 “손헌보 목사 구속 철회하라”

“개인의 문제 아닌 종교의 자유 심각한 위협” 지적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

예장 합동 김종혁 총회장이 손헌보 목사의 구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목사가 속한 고신 총회가 아닌 타 교단의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김 총회장은 14일 총회장 메시지를 통해 “최근 손헌보 목사가 구속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설교, 집회, 사역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영역”이라며 “국가 권력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은 최

후의 수단이며,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손헌보 목사에 대한 구속 결정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김 총회장은 “우리 총회는 정부와 사법부에 엄중히 요청한다. 손헌보 목사에 대한 구속을 조속히 철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범죄시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존중하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회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한국교회의 신앙과 사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헌보 목사와 그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세워 가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메시지 전문.
[총회장 메시지] 종교자유 수호와 손헌보 목사 구속철회 촉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전국 12,000여 교회와 약 230만 성도로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최근 손헌보 목사가 구속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사역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총회는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국가는 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교회와 목회자의 설교, 집회, 사역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 영역이며, 국가 권력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역시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며, 불구속 재판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손헌보 목사에 대한 구속 결정은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며, 한국교회 전체에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총회는 정부와 사법부에 엄중히 요청한다. 손헌보 목사에 대한 구속을 조속히 철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범죄시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존중하며 과도한 국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야말로 국가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당부한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회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한국교회의 신앙과 사명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헌보 목사와 그 교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세워 가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사태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계승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앞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국가와 사회가 헌법 정신 위에 바로 서도록 계속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교회부흥대성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다!

매주 7,8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

- 또한 목회자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목회자가 불 받고 변화돼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산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1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되느니라”(잠 15:23-24). 아멘.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살고 나

라가 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는 길이 열린다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방망이로 잡들고 병든 영혼들을 깨우고 치료하고 새롭게 깨우쳐 주는 장소가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글로벌아홀)이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칼같이 쓰시는 예사랑 목사(우주영광교회)를 만나 볼 수 있다. 예사랑 목사와 성도들이 힘

을 합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 종로 5가에서 기도드리면서 이 시대에 길 잃은 양들과 같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면 100주년 글로벌아홀이 차고 넘친다. 매주 놀라운 역사가 주께로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와서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 당신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강사로 나선 예사랑 목사는 잠 3:5-6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통점은 본심이라면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본심이란 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심은 매

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본심이 통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대인관계 있어서 그 인격은 별 불일 없으며 대인관계에 실패자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본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 애가 3:33절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지저스타임즈 CJTN TV방송 기자가 바라본 예사랑 목사는 한순간 아품도 있었지만 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은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능력과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예사랑 목사는 cjntv(<http://jntv.kr>) 방송을 통하여 세미나 영상과 주일예배 영상을 녹화방송하고 있으며 많은 구독자들의 시청으로 은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주영광교회는 권사들로 구성된 험시바 찬양단이 있다. 많은 목회자들은 험시바 찬양단의 찬양에 감동되어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놀라는 모습을 이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놀라고 있다. 할렐루야!

예장총회(합동보수) 제110회 성총회 열어

총회장 최병수 목사, 임원일동 유임



▲ 단체기념촬영



말씀선포 총회장 최병수 목사



축도 직전총회장 송덕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 도봉로 신일교회(안성호 목사)에서 제110회 정기총회를 갖고 1부 개회예배, 2부 성찬예식, 3부 회무처리, 4부 폐회에 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개회예배 인도 총회서기 김주현 목사(은진교회)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조재훈 목사(금능교회)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석홍열 목사(예원교회)가 성경 고후 2:4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최병수 목사(안디옥교회)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함”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최병수 총회장은 고린도 전, 후 서신을 중점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설교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위업을 선포하고 있으며,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일에 힘을 얻었지만,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으나 성령께서 그 사랑이라는 영의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었다. 우리 총회(합동보수)는 통합한 과정에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기도드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관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마음에 흔들림과 마음에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우리 또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 통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총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통합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오늘 성총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의 사랑이 있음을 온 총회원이 가슴에 품고 가는 총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는 총회원이 되기를 바란다

며 기원했다.

이어 대내총무 김원주 목사(삼일교회)가 광고하고, 직전총회장 송덕수 목사(능력교회)의 축도로 1부 개회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은 직전총회장 박명길 목사의 집례로 증경총회장 안성호 목사가 기도, 분병·분찬 위원에 이희수 오성섭, 이도재 염상수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회무처리에 총회장 최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기도 경기노회장 이종석 목사, 서기 김주현 목사의 회원호명, 최병수 총회장의 개회 선언되고, 절차 보고에 이어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 최병수 목사(평사노회·안디옥교회), 부총회장 조재훈 목사(경기노회·금능교회), 서기 김주현 목사(경천노회·은진교회), 부서기 이상렬 목사(수도노회·이레교회), 회록서기 석홍열 목사(중앙노회·예원교회), 회록부서기 오성섭 목사(한성노회·새생명교회), 회계 염상수 목사(경기노회·은석교회), 부회계 이순복 목사(평사노회·영광교회), 대외총무 김원주 목사(경기노회·삼일교회), 대외총무 이종석 목사(경기노회·운유한교회) 등이 제110회 총회에서 총회장 임원 전원 재선임되었다.

이날 총회는 최병수 총회장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주요 안건들을 다루었으며, 제4부 총회장 최병수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에서 서울노회장 임수연 목사가 기도를, 최 총회장의 말씀선포와 축도에 이어 폐회를 선언함으로 제110회기 성총회를 마쳤다.

삼만교회 후원 및 백만성도 대성회

한국교회 부흥 대성회

와! 보라! ♥ 초청합니다.

†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

- 일시 : 매주 (토) 오후 1:00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글로벌아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2번 출구 250m

주최/주관 : 우주영광교회 / CNL 후원회 / 예수사랑치유원

靑松 건강칼럼(1054)... Cholesterol Day

치매 씨앗' 발견과 치료 치매 극복의 날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지저스타임즈는설교문
대한보건협회 전문위원

치매 증상이 있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시로 읊은 이생진(李生珍) 시인이 향년 96세로 지난 9월19일 서울에서 별세했다. 192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지난 2018년 구순(九旬)을 맞아 시집 '무연고'와 특별 서문집, 산문집(작가정신)을 동시에 선보이기도 했다. 상화시인상(2001)과 운동주문학상(2002)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봄 평사리 최참판 댁 행랑채 마당에서 박경리문학관 주위로 '제1회 선진강에 벚꽃 피면 전국시낭송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낭송시가 이생진 시인의 <아내와 나 사이>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내와 나 사이 우리의 삶이란 "서로 모르는 사이/서로 돌아가며 살다가/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내와 나 사이>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지금은 아홉지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툼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계하듯 합니다/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아내는 방장과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까/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서로 돌아가며 살다가/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그것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우린 너무 먼데서 살았습니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가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World Alzheimer's Day)'이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대해 질문하세요'(Ask about dementia, Ask about Alzheimer's)이다. 이는 여전히 치매를 노화의 정상 과정으

로 오해하는 일반대중(80%)의 낮은 인식 수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치매는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암(癌)보다 더 두려운 질환으로 꼽힌다. 대한치매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인 응답자의 90%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9일(금) 오전 9시30분 서울시장 앞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기념식에는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해 치매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치매를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당사자 25명에게 '치매동행 희망대상'을 수여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념식에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는 약 16만여 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천만 시민 기억신과 프로젝트로 인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며, 기억키움학교와 가족교실로 환자와 가족의 일상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치매와 동행하는 모든 분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곁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도시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치매는 환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주변인의 돌봄 부담,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다. 2023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639만원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에 소요되는 국가치매 관리비용은 약 24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2070년에는 약 215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KDSQ: 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이다. 만 60세 이상 대상 인지기능장애에 평가 도구이며, 다음 15개 질문에서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으로 점수를 매겨, 6점 이상이면 '경도인지장애'로 보고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른다. ▲자기가 낡은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자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물건을 가리지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어려워 머

뚱거린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세탁기, 전기밥솥 등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가기 어렵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 치매 치료 패러다임(paradigm)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즉, '치매 씨앗' 조기 발견과 치료로 속도전이 불고 있다. 치매 단계로 오면, 증상을 늦추는 치료 방식에서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에서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 적극적인 약물 치료로 치매를 막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마치 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병소(病巢)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같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적으로 레켄비(Leqembi, 성분명 레카넨)처럼 치매 유발 물질에 달라붙어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나오고,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밀로이드 PET-CT가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도인지장애에 상태의 환자에 대한 항체 치료가 활발히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은 치매가 발생하기 10~15년 전부터 뇌에 베타아밀로이드(Amyloid-Beta)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며 시작된다. 이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뇌 세포를 죽게 한다.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Hippocampus)다.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되면, 방사선 노출을 피하며 검사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질 환 표지자 검사(CSF 검사, Cerebrospinal Fluid)'를 권장한다.

AI(인공지능)와 바이오 기술은 치매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AI 기반 신약 개발, 혈액검사로 가능한 조기 진단 기기,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차세대 약물 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는 백신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치매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두 질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연구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양극성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복합적으로 앓는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단일 질환자보다 치매 위험이 4배, 세 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는 11배까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뇌 내 특정 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 해마와 전두엽 등 뇌 부위의 위축, 뇌혈류 감소와 같은 신경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이 변화가 지속되면 뇌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는 회복력(신경가소성)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될 경우,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등이 급격히 저하되며 결국 치매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신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이때 체내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 반응을 도와주지만, 장기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위축과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는 다시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걸까요? 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 기준은 일주일에 360분, 고강도로 걷기이다. 단순 산책이 아닌, '고강도 걷기'라는 점이 핵심이다. 고강도 걷기는 뇌혈류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번에 규명된 360분/주 기준은 일주일에 6일, 하루 1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수준이다.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으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이 과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뇌혈류 감소인데, 고강도 걷기는 이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빠른 걸음으로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수준의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자극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준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걷기를 주기적으로 한 사람들은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운동을 통해 뇌 속 해마의 혈류와 신경세포 연결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강도 운동은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 불리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물질은 기억력 유지와 신경 재생에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치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운동, 매일 균형잡힌 식사를 하며 독서, 글씨, 절주, 뇌손상 예방,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 치매 조기 검진 등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매는 조기 진단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예수님 재림의 때[1] |

우상숭배를 피하라

(지난 시간 이어서)

요일 4: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먼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속하게 하였으니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4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니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1.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포박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일뿐 아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상숭배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어 빠져 있는 자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종개인 귀신들의 문화인 제사 문화에 빠져서 그 제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에 빠져들면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가 하면 결국 인간들은 귀신의 영에 굴복하여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결국 그의 종착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꺼지지 않은 유허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요일 4:5~6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니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

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삼계명 중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곳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 12:28~29를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추석 명절에 우상숭배, 조상숭배, 성묘 등을 꼭두 꾸어서도 안 된다. 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에만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단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 몸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호에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구필 목사
(홍익대학 이사장)

동천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일에 배안내
예배 오전 9시 1부
오전 1시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절야: 오후 9시
새벽예배: 오전 5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장승현

평안교회

목표: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 일 오후 오후 2:00
삼 일 예 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학을 봉학로 62~5
☎ (041) 356-0644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 (2/3), 3동 101호 (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한동보수총경총회장)

평안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백명석 목사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석 목사

풍성한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윗대야 2길 5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유재환 목사

제자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삼로 610 1층
☎031-332-500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홍한표

사랑의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 일 오후 오후 2:00
"한국 경복궁회 총장"
"사도영성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70-40
☎ (02) 58-1955, H.P 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옥 목사
(연리총회장)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송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관호 목사

세향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목사코너 (621)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 3:10~14)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어찌 악인이 의인을 삼키며 폭력, 약탈, 싸움, 살인이 난무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고 있습니까?’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의 심판이 지체치 아니하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음 안에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한 의가 계시 되었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만 하므로, 또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켜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가지 율법 중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요, 저주입니다. 또 문자적,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 지적·의의 인격적인 법이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한 자요,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온전한 뜻을 다 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율법 주의자들의 율법의 행위가 온전치 못한 것과 그들이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오로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 15:6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이미 그는 갈래야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의인이요, 또 아직 자식이 없어오 ‘네 씨가 하늘의 별 같이 무수하게 되리라’ 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 의인인 그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롬 1:17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요, 그는 계속 그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리니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림 주를 믿고, 그분의 재림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히 10:38).

그런고로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난자들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난 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요, 산자가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종말에는 일곱 영까지 부어 주시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죄, 스펀지, 물 목회



이춘복 목사

나는 기다리는 목회를 통해 쉬운 목회를 했는데 세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 첫째가 쇠목회이다. 쇠는 강한 쇠가 있고 약한 쇠가 있다. 강한 쇠는 휘어지지 않지만 부러진다. 그러나 약한 쇠는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쇠는 강한 쇠가 강한 게 아니라 약하고 휘어지는 쇠가 강한 것이다. 강한 목회는 밝은 사람이 있어도 휘어지지 않지만 강하게 밝히면 버티다, 버티다 결국 부러지고 만다. 나는 목회할 때 밝은 사람이 있으면 약한 쇠가 되어 구부러지고 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모르게 다시 피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

대개 휘어지는 쇠처럼 부드럽게 묵회하는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좋은 은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하게 묵회하던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밝아도 제왕처럼 끄떡없이 강하게 묵회했는데 은퇴할 때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다. 그동안 힘에 밀려 잠재해 있던 불만들이 표출되면서 은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2. 스펀지 목회

두 번째는 스펀지 목회이다. 손주들이 어리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을 같이 시청할 때가 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 스펀지 밥이라는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나온다. 손주들과 같이 스펀지 밥을 보면서 맞아! 스펀지 밥처럼 묵회해야지! 스펀지 밥은 노란색을 띤 네모난 모습으로 송송 구멍 난 몸체에 팔다리가 달려 있고 앞니 두 개가 돌출되어 있다. 네모난 바지를 착용하며 줄무늬 양말을 신고 건너다 움직일 때마다 뻑뻑 소리가 난다. 몸체가 산산조각이 나거나 팔다리가 뜯어져도 쉽게 복원된다. 무거운 것이 몸 전체를 덮어 납작하게 되어도 다시 복원된다.

내가 스펀지 밥에서 목회를 생각한 것을 보면 역시 직업은 숙일 수 없나 보다. 스펀지는 쇠나 유리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깨지지는 않는다. 강한 유리처럼 안 들어가려고 납작해지지 않고 버티면 결국 산산조각 깨어져 다시는 복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스펀지는 물건이 떨어지면 폭 들어가고 무거운 것에 눌리면 납작해진다. 그러나 찢어지거나 깨지지 않고 다시 같은 모양으로 복원된다.

목회는 스펀지처럼 해야 한다. 무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병고침보다 중요



황성주 박사

나는 안식년을 마치고 콜로라도에서 귀국해야 하는 시점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안식년에 오히려 미국 사역에 욕심을 냈던 것이 무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생수와 같은 은혜가 터지는 사건들이 생겼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뜻하지 않은 연속적인 만남이 내게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은 한 쪽의 수채화와 같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 일들을 통해 나는 나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느꼈다.

귀국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건국대 교수이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며 헤븐리터치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손기철 장로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집회 차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다. 손 장로님과 나는 교회연합 사역을 통해 예전부터 알았다. 그런데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장로님의 집회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8월 16일, 미국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첫날 집회에 처음 참석해보니 내가 듣기에 설교가 딱딱하고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단 한 번의 예화도 없이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선포하셨다. 나는 1부 말씀 순서가 끝나자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 그런데 끝까지 집회에 참석하신 권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놀라웠다. 그분은 내가 머물렀던 콜로라도 공동체를 섬기던 권사님이었는데 집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 오늘은 나도 끝까지 참석하기로 작정하고 집회에 갔다. 말씀은 첫날과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일관되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사역의 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의 조용한 말씀에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성령님이 강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깊이와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궁극적인 속죄를 예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을 희생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죄를 희생양에게 전가하여 그것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속죄되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참된 것이 아니니라”(히 10: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동일한 제사로는 예배하러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히브리서 10:3-4, 10).

참고로 일부 유대 신화에는 “아자젤”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애굽자, 거인의서, 기타 위경서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아사셀이 창세기 6장에서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 중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저주 , Azazel은 염소와 같은 악마의 형태를 취해야했습니다. 이 신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사셀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아사셀/희생양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자젤” 또는 “아사셀”은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의 일부로 언급됩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서[대제사장은 지시를 받았는데] 속죄제물로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5절).

제사장은 그 짐승들을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두 염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희생양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고 그 피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20절). 정결케 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사악함과 반역, 곧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여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말도 못 지적된 사람에게 맡겨 염소를 광야로 보낼 것입니다.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먼 곳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은 그것을 광야에 놓아두리라”(21-22절). 상징적으로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제하여 주었습니다(10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물이십니다. 여러 면에서 그분은 속죄일의 각 측면을 구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히 4:14). 그분은 또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계시록 13:8)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희생양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 없는 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맡겨졌습니다. 마치 희생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한 것처럼 그분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가 53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을 받아들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지워진 후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본질적으로 염소는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시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셨음이라”(이사가 53:3a, 12). 예수님은 희생양이 상징하는 것, 즉 가해자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것을 구제화하셨습니다.

진실로 구약의 의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황덕광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저녁 7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9길 61
02)324-4680-323-9106, FAX 02)325-9091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담임목사 김사라(Th. D)
예장 웨신총회 임원

광주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예다움 2차 후문 수완중 앞)
TEL 062)953-4620 HP 010-8665-5522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상교회(日常教會)



담임목사 최정수
부목사 이성현

예배안내
본 예배 주일 11시 주일 오후 주일 14시
수요 예배 19:30 새벽 예배 매일 06시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13시
청년 예배 주일 10시
직장 예배 매일 8시30분 에이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9번길 10. 3층
Tel:031-216-2089 / 010-2252-3352

행복의집,(시온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동훈복지재단



대표이사 곽동훈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3급차 환별)

강원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법인사무국)
T. 033-576-0202(070-8986-1009, 070-8986-1004) M. 010-7580-1004
F. 033-576-0236(0504-091-4234) E. dhwf1004@naver.com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명호 목사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장로회 베엘중앙교회



담임 이혜준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장로회 평안하고든든한교회



담임 오승술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기독교한국침례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이홍철

표어: 예루살렘의 영광이여! 이곳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74-2(세광1차 아파트상가 3층)
TEL 022)933-9182 HP 010-7181-5088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장로회 꿈과희망교회



담임목사 김복래

예배안내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광명시 영우로 36(구:소화2동 950-15)
H.P 010-9852-3927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담임 임명숙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7:00
매일저녁기도회: 오후 8:00

경기도 안성시 구례길길 213-8 전화: 010-4087-3468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담임목사 모상현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 (산전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목양칼럼

오늘의 다국어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헬라어

Χριστῷ συνεσταύρωμαι: ζῶ δὲ οὐκέτι ἐγώ, ζῇ δὲ ἐν ἐμοὶ Χριστός. 크리스토이 쉬네스타브로마이· 조 데 우케티 예고, 제이 데 엔 예모이 크리스토스· / Χριστῷ (크리스토이) 그리스도와 함께· / συνεσταύρωμαι (쉬네스타브로마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ζῶ (즈) 산다. δὲ (데) 그러나, 그런데. οὐκέτι (우케티) 더 이상... 아니요. ἐγώ (예고) 나. ζῇ (제이) 산다. ἐν (엔) 안에. ἐμοί (에모이) 내 안에. 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갈후 3:6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Εντολλόμεθα δὲ ὑμῖν, ἀδελφοί, ἐν ὀνόματι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στέλλεσθαι ὑμᾶς ἀπὸ παντὸς ἀδελφοῦ ἀτάκτως περιπατοῦντος καὶ μὴ κατὰ τὴν παράδοσιν ἣν παρελάβετε παρ' ἡμῶν.

□ Εντολλόμεθα (엔톨로메타) 우리가 명령한다. / ὑμῖν (휘민) 너희에게. / ἀδελφοί (아델포이) 형제들이. / ἐν ὀνόματι (엔 오노마티) 이름으로. /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이에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 στέλλεσθαι (스텔레스타이) 떠나라, 물러나라. / ἀπὸ παντός ἀδελφοῦ (아포 판토스 아델푸) 모든 형제에게서. / ἀτάκτως περιπατοῦντος (아탁토스 페리파톤토스) 게으르게 행하는. / παράδοσιν (파라도신) 전통. / παρελάβετε (파렐라베테) 너희가 받은. / παρ' ἡμῶν (파르 헤몬) 우리에게서.

δοκιμάζεται ἀργύριον ἐν χωνευτηρίῳ καὶ χρυσίον ἐν καμίνῳ, ἄνδρα δὲ ἐν στόματι πῶν ἐπαινουμένων αὐτόν. 도키마제타이 아르퀴리온 엔 카미노, 안드라 데 엔 스토마티 톤 에파이논톤 아우톤. □ δοκιμάζεται (도키마제타이) 시험된다, 단련된다. / ἀργύριον (아르퀴리온) 은. χωνευτηρίον (호네프트리온) 도가니. / χρυσίον (흐뤼시온) 금. / κάμιнос (카미노스) 풀무. / ἀνὴρ/ἄνδρα (아네르/안드라) 사람. / στόμα (스토마) 입. / ἐπαινούντων (에파이논톤) 칭찬하는 자들. / αὐτόν (아우톤) 그를. /

히브리어

נִסְּתָהּ בְּאֵשׁ הַמִּזְבֵּחַ לְאֵשׁ ה' בִּי אֶת־הַחֲטָאִים. 나히 하마쉬아흐 니슬라브티, 베아타 로·아니 하이, 키 임·하마쉬아흐 하이 비. / נִסְּתָהּ (임) 함께. / הַחֲטָאִים (하마쉬아흐) 그리스도, 메시아. / בְּאֵשׁ הַמִּזְבֵּחַ (니슬라브티) 나는 못 박혔다. הַחֲטָאִים (베아타) 그런즉, 이제. / לְאֵשׁ (로·아니) 내가 아니요, 니(하이) 산다. / בִּי אֶת (키 임) 오직·과(비) 내 안에.

נִסְּתָהּ בְּאֵשׁ הַמִּזְבֵּחַ לְאֵשׁ ה' בִּי אֶת־הַחֲטָאִים (메차빔) 명령한

다. אֶת־ה' (아헷) 형제들이. בְּאֵשׁ (브셀) 이름으로. הַחֲטָאִים (예수아 함마쉬아흐) 예수 그리스도. הַמִּזְבֵּחַ (르히트라헤) 떠나라. לְאֵשׁ (미콜 아흐) 모든 형제에게서. בְּאֵשׁ הַמִּזְבֵּחַ (브아츨루트) 게으름으로. נִסְּתָהּ (마소레트) 전통. בְּאֵשׁ (키넬) 받은 נִסְּתָהּ (메이타누) 우리에게서.

잠 27: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נִסְּתָהּ בְּאֵשׁ הַמִּזְבֵּחַ לְאֵשׁ ה' בִּי אֶת־הַחֲטָאִים (마초레프 라케세프, 웨쿠르 라자하브, 웨이쉬 레피 마할라로. נִסְּתָהּ (마초레프) 도가니, בְּאֵשׁ (라케세프) 은을 위해, הַמִּזְבֵּחַ (웨쿠르) 풀무(공방로), הַמִּזְבֵּחַ (라자하브) 금을 위해, לְאֵשׁ (웨이쉬) 사람들, בְּאֵשׁ (레피) 그의 입에 따라. נִסְּתָהּ (마할라로) 칭찬, 찬양. 라켄 하에무나 바아 미쉬마아, 베하시미아 알 예데이 트라르 하마쉬아흐. לְאֵשׁ (라켄) 그러므로. הַמִּזְבֵּחַ (하에무나) 믿음. בְּאֵשׁ (바아) 온다, 나온다. הַחֲטָאִים (미쉬마아) 들음에서. הַמִּזְבֵּחַ (베하시미아) 그리고 들음은. לְאֵשׁ (알·예데이) ~으로 말미암아, ~을 통하여. בְּאֵשׁ (드바르) 말씀. הַמִּזְבֵּחַ (하마쉬아흐) 메시아, 그리스도.

라틴어

Christo confixus sum cruci; vivo autem iam non ego, vivit vero in me Christus. 크리스토 콘픽수스 숨 크루치· 비보 아우템 iam 논 에고, 비비트 베로 인 메 크리스투스. Christo (크리스토) 그리스도와. confixus sum cruci (콘픽수스 숨 크루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vivo (비보) 나는 산다. autem (아우템) 그러나. iam non ego (이암 논 에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vivit (비비트) 산다. vero (베로) 참으로. in me (인 메) 내 안에. Christus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δοκιμάζεται ἀργύριον ἐν χωνευτηρίῳ καὶ χρυσίον ἐν καμίνῳ, ἄνδρα δὲ ἐν στόματι πῶν ἐπαινουμένων αὐτόν. 도키마제타이 아르퀴리온 엔 χωνευτηρίῳ καὶ χρυσίον ἐν καμίνῳ, ἄνδρα δὲ ἐν στόματι πῶν ἐπαινουμένων αὐτόν. 도키마제타이 아르퀴리온 엔 호네프트리오, 카이 흐뤼시온 엔 카미노, 안드라 데 엔 스토마티 톤 에파이논톤 아우톤.

□ δοκιμάζεται (도키마제타이) 시험된다, 단련된다. ἀργύριον (아르퀴리온) 은. χωνευτηρίον (호네프트리온) 도가니. χρυσίον (흐뤼시온) 금. κάμιнос (카미노스) 풀무. ἀνὴρ/ἄνδρα (아네르/안드라) 사람. στόμα (스토마) 입. / ἐπαινούντων (에파이논톤) 칭찬하는 자들. αὐτόν (아우톤) 그를.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ἄρα ἡ πίστις ἐξ ἀκοῆς, ἡ δὲ ἀκοή διὰ ῥήματος Χριστοῦ. 아라 헤 피스티스 엑스 아코에스, 헤 데 아코에 디아 레마토스 크리스투. □ ἄρα (아라) 그러므로. ἡ (헤) 그 (정관사, 여성 단수 주격). πίστις (피스티스) 믿음. ἐξ (엑스) ~에서. ἀκοῆς (아코에스) 들음, 청취 (속격). ἡ δὲ (헤 데) 그러나 그. ἀκοή (아코에) 들음 (주격). διὰ (디아) ~을 통하여. ῥήματος (레마토스) 말씀, 말 (속격). Χριστοῦ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속격).

그리스도의교회 교단
총회장 김복철 목사



영어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아이 엠 크루서파이드 위드 크라이스트, 네버더레스 아이 리브, 옛 낫 아이, 벳 크라이스트 리버스 인 미. I am crucified (아이 엠 크루서파이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with Christ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nevertheless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live (아이 리브) 나는 산다. yet not I (옛 낫 아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but Christ liveth (벳 크라이스트 리버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in me (인 미) 내 안에.

Now we command you, brethren,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ye withdraw yourselves from every brother that walketh disorderly, and not after the tradition which e received of us.

command (커맨드) 명령하다. brethren (브레드런) 형제들이. withdraw (위드드로) 떠나라. disorderly (디소틀리) 게으르게, 질서없이. tradition (트래디션) 전통. received (리시브드) 받은.

As the fining pot for silver, and the furnace for gold; so is a man to his praise. 에즈 더 파이닝 팟 포 실버, 앤 더 퍼니스 포 골드; 소 이즈 어 맨 투히즈 프레이즈 피닝 팟 도가니. silver 은. furnace 풀무. gold 금. man 사람. praise 칭찬.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소 덴 페이스 커 메스 바이 히어링, 앤드 히어링 바이 더 워드 오브 갓. So then 그러므로. faith 믿음. cometh 나온다. by hearing 들음으로, and hearing 그리고 들음은. by the word 말씀으로. of God/Christ 하나님/그리스도.

독일어

Ich bin mit Christus gekreuzigt; ich lebe, doch nun nicht ich, sondern Christus lebt in mir. 이히 빈 미트 크리스투스 게크로이치히트, 이히 레베, 도흐 nun 니히트 이히, 쏬더른 크리스투스 레프트 인 미어.

Ich bin (이히 빈) 나는 ...이다. mit Christus (미트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와 함께. gekreuzigt (게크로이치히트) 십자가에 못 박혔다. ich lebe (이히 레베) 나는 산다. doch nun nicht ich (도흐 nun 니히트 이히) 이제는 내가 아니요. sondern (쏬더른) = 오직. Christus lebt (크리스투스 레프트) 그리스도께서 산다. in mir (인 미어) 내 안에.

Wir gebieten euch aber, Brüder, im Namen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dass ihr euch fernhaltet von jedem Bruder, der unordentlich lebt und nicht nach der Überlieferung, die er von uns empfangen hat.

gebieten (게비텐) 명하다. Brüder (브뤼더) 형제들이. im Namen (임 나멘) 이름으로.

fernhaltet (펠른할텐) 떠나라. unordentlich (운 오르텐틀리히) 게으르게. Überlieferung (위버 리퍼웬) 전통 empfangen (엠프팡엔) 받은.

Der Tiegel prüft das Silber, und der Ofen das Gold, und der Mensch wird geprüft durch das Lob, das er empfängt. 데어 티겔 프뤼프트 다스 실버, 운트 데어 오펜 다스 골트, 운트 데어 멘쉬 비어트 게프뤼프트 두어히 다스 로브, 다스 에어 엠펜텔. Tiegel (티겔) 도가니. Silber (실버) 은. Ofen (오펜) 풀무, 화덕. Gold (골트) 금. Mensch (멘쉬) 사람. Lob (로브) 칭찬. geprüft (게프뤼프트) 시험받다.

"So kommt der Glaube aus der Predigt, das Predigen aber durch das Wort Christi." 조 콤트 데어 글라우베 아우스 데어 프레디히트, 다스 프레디겐 아버 두르히 다스 보르트 크리스티.

□ So kommt (조 콤트) 그러므로 나온다. der Glaube (데어 글라우베) 믿음. aus der Predigt (아우스 데어 프레디히트) 들음에서. das Predigen (다스 프레디겐) 들음은. durch das Wort (두르히 다스 보르트) 말씀으로. Christi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프랑스어

J'ai été crucifié avec Christ; et si je vis, ce n'est plus moi qui vis, c'est Christ qui vit en moi. 제 에테 크뤼시피예 아벡 크리스티, 에 시 즈 비, 쓰네 플뤼 모아 키 비, 세 크리스트 키 비 앙 무아.

□ J'ai été crucifié (제 에테 크뤼시피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avec Christ (아벡 크리스티) 그리스도와 함께. je vis (즈 비) 나는 산다. ce n'est plus moi (쓰네 플뤼 모아) 이제는 내가 아니요. qui vis (키 비) 사는 이는. c'est Christ (세 크리스티) 오직 그리스도. qui vit en moi (키 비 앙 무아) 내 안에 사신다

Nous vous recommandons, frères, au nom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de vous éloigner de tout frère qui vit dans le désordre et non selon l'enseignement que vous avez reçu de nous.

recommandons (르코망돈) 명령한다. frères (프레르) 형제들이. au nom de (오 ном 드) 이름으로. éloigner (엘로야네) 떠나라. désordre (데 조르드르) 무질서, 게으름. enseignement (앙 세뉴망) 전통, 가르침. reçu (르슈) 받은.

Le creuset est pour l'argent, et le fourneau pour l'or; mais l'homme est éprouvé par la bouche qui le loue. 르 크뤼제 에 푸흐 라흐쥬, 에 르 푸흐노 푸흐 로흐; 메 라움 에 에프흐루베 파흐 라 부슈 키 르루.

creuset (크뤼제) 도가니. argent (아흐쥬) 은. fourneau (푸흐노) 풀무. or (오흐) 금. homme (옴) 사람. bouche (부슈) 입. loue (루) 칭찬하다.

"La foi vient de ce qu'on entend, et ce qu'on entend vient de la parole de Christ." 라 프와 비앙 드 세 쿵 앙텐드, 에 세 쿵 앙텐드 비앙 드 라 파롤 데 크리스트. La foi (라 프와) 믿음. vient de (비앙 드) ~에서 온다. ce qu'on entend (세 쿵 앙팡) 들음. la parole (라 파롤) 말씀. de Christ (드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중국어

我已经与基督同钉十字架，现在活着的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里面活着。 위 이징 위 지두 톱딩 스즈자, 시엔짜이 후위저 더 부짜이 스위, 나이스 지두 짜이 위 리미엔 후위저.

□ 我已经 (위 이징) 나는 이미 ...했다. 与基督 (위 지두) 그리스도와 함께. 同钉十字架 (톱딩 스즈자) = 십자가에 못 박혔다. 现在活着的 (시엔짜이 후위저 더) 이제 사는 것은. 不再是我 (부 짜이 스위) 내가 아니요. 乃是基督 (나이스 지두) 오직 그리스도. 在我里面活着 (짜이 위 리미엔 후위저) 내 안에 사신다.

弟兄们，我们奉主那 基督的名，吩咐你们，要远离一切不按规矩而行，不遵守从我们所受的弟兄。

□ 弟兄们 (dìxiongmen, 디송엔) 형제들이. 奉 (fèng, 펑) ~의 이름으로. 吩咐 (fēnfú, 펀푸) 명령하다. 远离 (yuǎnlí, 위안리) 떠나라. 不按规矩 (bù àn guījǔ, 부 안 꾸이쥬) 게으르게, 질서 없이. 训 (jiàoxùn, 자오원) 전통, 교훈. 所受 (suǒshòu, 쑤어쇼우) 받은.

鼎为炼银，炉为炼金，人的称赞也试炼人。 덩 웨이 리엔 인, 루 웨이 리엔 진, 런 더 칭판 예 스 리엔 런. 鼎 (딩) 도가니. 炼银 (리엔 인) 은을 제련하다. 炉 (루) 풀무, 화덕. 炼金 (리엔 진) 금을 제련하다. 人的称赞 (런 더 칭판) 사람의 칭찬. 试炼人 (스리엔 런) 사람을 시험한다.

"可见，信道是从听道来的，听道是从基督的话来的。"

可见, 신다오스 쥬 퉁다오 라이더, 퉁다오스 쥬 지두 더 화 라이더. 可见 (커젠) 그러므로. 信道 (신다오) 믿음. 从听道来的 (쥬 퉁다오 라이더) 들음에서 난다. 听道 (팅다오) 들음. 基督的话 (지두 더 화) 그리스도의 말씀.

일본어

わたし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生きているのは、もはやわたしではなく、キリストがわたしの内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ある。 와타시와 키리스토 투 토토모니 주지가니 츠케라레타. 이키테 이루노와 모하야 와타시데와 나쿠, 키리스토가 와타시노 우치니 이키테 오라레루노데 아우루.

□ わたしは (와타시와) 나는. キリストと共に (키리스토 투 토토모니) 그리스도와 함께. 十字架につけられた (주지가니 츠케라레타) 십자가에 못 박혔다. 生きているのは (이키테 이루노와) 사는 것은. もはやわたしではなく (모하야 와타시데와 나쿠) 이제는 내가 아니요. キリストが (키리스토가) 그리스도께서. わたしの内に (와타시노 우치니) 내 안에. 生きておられる (이키테 오라레루) 사신다.

兄弟たちよ、わたしたちは主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あなたがたに命じる。すなわち、すべて怠惰に み、わたしたちから受けた えによって まない兄弟を避けなさい。 兄弟たちよ (きょうだいたちよ, 쿄·다이타치요) 형제들이. 主イエスキリスト (しゅイエスキリスト, 슈·이에스 키리스토) 주 예수 그리스도. 命じる (めいじる, 메이 지루) 명령하다. 怠惰 (たいだ, 타이다) 게으름.

む (아ゆむ, 아우무) 행하다. え (おしえ, 오시에) 전통, 가르침. 避けなさい (さけなさい, 사케나사이) 떠나라.

るつばは銀をためし、 炉は金をためす。 人はそ

の称赞によってためされる。 루츠보 와 긴 오 타 메시, 로 와 긴 오 타메스. 히토 와 소노 쇼산 니 유테 타메사레루. るつば (루츠보) 도가니. 銀 (ぎん) 은. 炉 (ろ) 풀무. 金 (きん) 금. 人 (ひと) 사람. 称赞 (しょうさん) 칭찬. ためされる (타메사레루) 시험 받는다, 단련된다.

"したがって、信仰は聞くことから始まり、聞くことはキリストについての言葉によるのです。" 시 타갓테, 신코와 키쿠코토카라 하지마리, 키쿠코토와 키리스토니 쓰이테노 코토바니 요루노데 스. □ したがって (시타갓테) 그러므로. 信仰 (しんこう, 신코우) 믿음. 聞くこと (きくこと, 키쿠코토) 들음. 始まり (はじまり, 하지마리) 시작된다. キリストの言葉 (키리스토노 코토바) 그리스도의 말씀.

스웨덴어

Jag är korsfäst med Kristus, och nu lever icke mer jag, utan Kristus lever i mig. 야그 예르 코르스페스트 메드 크리스투스, 오크 누 레베르 이케 메르 야그, 우탄 크리스투스 레베르 이 미그.

□ Jag (야그) 나, 내가 är (에르) ~이다, ~이다/있다 (am) korsfäst (코르스페스트) 십자가에 못 박힌 (crucified) med (메드) ~와 함께 (with) Kristus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Christ) och (오크) 그리고 (and) nu (누) 이제 (now) lever (레베르) 산다, 살아 있다 (live) icke (이케) 아니다, 아닌 (not) mer (메르) 더 이상 (anymore) jag (야그) 나 (I, me) utan (우탄) 옯, 그러나, 대신에 (but, except) Kristus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Christ) lever (레베르) 산다 (lives) i (이) ~안에 (in) mig (미그) 내 안에, 내 안에서 (me). Pero os ordenamos, hermanos, en el nomb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os apartéis de todo hermano que ande desordenadamente, y no según la enseñanza que recibisteis de nosotros.

□ ordenamos (오르테나모스) 명령한다. hermanos (에르마노스) 형제들이. en el nombre (엔 엘 노μβ레) 이름으로. apartéis (아파르타이스) 떠나라. desordenadamente (데 소르테나다멘테) 게으르게. enseñanza (엔 세난사) 전통, 교훈. recibisteis (레시비스테이스) 받은. Degeln prövar silvret, och ugnen guldet; så prövas en man genom det som han får beröm för. 데겔렌 프뢰바르 실브렛, 오크 우그넨 굴데트; 소 프뢰바스 엔 만 에노름 데 쉘 판 포르 베람 뤼르.

Degeln (데겔렌) 도가니. silvret (실브렛) 은. ugnen (우그넨) 풀무. guldet (굴데트) 금. man (만) 사람. beröm (베람) 칭찬, 명성. prövas (프뢰바스) 시험받다.

"Así que la fe es por el oír, y el oír, por la palabra de Dios." 아시 게 라 페 에스 포르 엘 ой르, 예 엘 ой르, 보르 라 팔라브라 데 디 오스. □ Así que (아시 게) 그러므로. la fe (라 페) 믿음. es por el oír (에스 포르 엘 ой르) 들음에서 난다. y el oír (이 엘 ой르) 그리고 들음은. por la palabra (포르 라 팔라브라) 말씀으로. de Cristo/Dios (데 크리스토/디오스) 그리스도의.

※1만여 교회와 소통하며 기게는 최신제품으로 가격은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이 올라도 △UP
저희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DOWN

인터넷 최저가 보다 50여만원 더 저렴한

칼라주보복합기

240만원 ⇒ 129만원! 가격에 드립니다.

잉크젯 복합기 국내 최초
복사기 헤드 6년 무상 보증



- ▶검정 50,000매
- ▶칼라 20,000매
-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USB 양면 기본
- ▶칼라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다!
- ▶A4 세계 최강! 세계최초 수성 잉크
- ▶3단 6면,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60cm배너 출력 가능
- ▶주보 양면 연속 가능(카세트에서 주보 가능) A4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가능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는다.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90%)

인터넷 최저가 보다 50여만원 더 저렴한

A3무한잉크 컬러 복사기

성공 목회를 위한 엡손 완성형 정품 무한
팩스 컬러 복합기

198만원 ⇒ 109만원! 반가격에 드립니다.



높은 생산성
유지비를 대폭 낮춘 슈퍼 대용량 잉크
L15160 감성잉크 127ml와 컬러 70ml의 대용량 잉크가 기본 제공되며,
장당 출력 비용 대폭 낮춰 유지비 걱정없이 대량 출력이 가능합니다.

슈퍼대용량잉크 흑백 7,500 장
기본 제공 잉크 검정 127ml / 컬러 각 70ml 컬러 6,000 장

EPSON 완성형 정품 무한
L15160 A3

※1만여 교회와 소통하며 기게는 최신제품으로 가격은 1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298만원 → 159만원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물에 번지지 않는 잉크
(2024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주보 양면 연속 가능(카세트에서 주보 가능)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가능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우편 감지대 (80배 적자가능)

※ 컬러를 물 쏠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내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용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으로 보호
- 철저적인 속력 대응형 잉크 카트리지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0f)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벤트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C/M,Y 4개)를 더 드립니다.

4개 25개 (250매) ⇒ (550매) ⇒ 교회 1만대 이상 복사기 관리 업체 (주)영광기업 179만원 194만원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1588-0691

영광기업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장영광 장로 010-5779-0691 인건담당: [영광구영장] 032-551-4114 홈페이지 jubo114.com

칼라주보복합기



“교회 모든 인쇄를 단 1대로 OK”

소모품 용량

블랙 50,000 매
컬러 30,000 매

대용량잉크 카트리지를

Epson WorkForce Enterprise
AM-C4000/AM-C5000/AM-C6000
A4 컬러/흑백용량 50매 A4 컬러/흑백용량 50매 A4 컬러/흑백용량 60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앞)
Mobile. 010-3651-8572, 010-5779-0691 Tel.1588-0691 www.glory114.com

남원중앙교회 윤영근 작가와 함께하는 글짓기 대회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제로



▲ 윤영근 작가와 함께 하는 글짓기 대회 기념 촬영



▲ 개회기도-정종승 목사

지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남원중앙교회(정종승 목사)가 지난 9월 21일(주일) 오후에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 윤영근 작가와 함께하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원중앙교회는 1952년 10월 3일 남

원교회 여전도회장 관사에서 기도처로 시작하여 1953년 죽향동 75번지 말밭(18평)을 구입 수리하여 예배처로 시작하였다. 그 해 10월 3일 설립예배를 드렸다. 2021년 5월 31일 제14대 정종승 담임목사가 취임하여 다음 세대부터 세계열방까지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남원중앙교회 행복학교 문건동 위원장 사회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남원중앙교회 정종승 목사는 개회사를 통하여 “먼저 교회를 창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고,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윤영근 작가와 참석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장 윤영근 작가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심사기준과 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교회 창립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이 시를 작성할 종이를 받아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윤영근 작가와 함께하는 글짓기 대회는 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 발표와 전시회, 시낭송은 10월 12일(주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글짓기 대회를 협력해 주신 윤영근 작가는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원광대 대학원 한의학과를 졸업한 한의사이기도 하다. 1980년 월간 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상쇠’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고, 한국예총 남원지회를 창립하고 33년 동안 지부장을, 전북소설가협회 창설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남원항일운동사’, 창작집 ‘상쇠’, 장편소설 ‘동편제’, ‘의열 윤봉길’, ‘각설이의 노래’, ‘유자광전’, ‘아름다운 삶’, ‘독립지사 임철호’, 평설 ‘홍도전’ 등이 있다. 전북문학상, 목정문화상, 전북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제72회 전국 최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 진도견 대회 이철용 총재

대한민국 한국진도견협회(한진협, 총재 이철용)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의 보존·육성·발전을 위해 지난 20일 충주 에스연수원에서 ‘제72회 전국 최우수 진돗개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빼어난 자질을 갖춘 진돗개 130마리가 모여 자태를 뽐낸 본선 품평회에서 성경수조 챔피언에는 견명 ‘영화’(황색/수컷, 견주 정병용, 전북익산)가 최우수견으로 챔피언으로, 성경암조 챔피언은 견명 ‘다래호’(백색/암컷, 견주



제72회 전국 최우수 진돗개 선발대회

권대식, 충북 충주)가 챔피언이 되었다.

이날 대회를 개최한 대한민국 한국진도견협회는 진돗개의 세계 명견화 조기 정착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진돗개 단일견 전문 원로 연구단체이다.

대회에는 국경인 진돗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철용 한국진도견협회 총재와 조길형 충주시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90차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김복철 목사

그리스도의교회 총회가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 대전 정금그리스도 의교회(담임: 이길수 목사)에서 제9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측은 “일부 소수 집단이 교단을

이탈하여 별도로 총회를 열고 총회장을 세운 것은 불법이며, 이는 정·부총회장 외 제명 및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인사들이 자숙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교단을 분리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스도의교회총회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하나님

의 뜻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제90차 정기총회에 총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리스도의교회총회 2025년 9월 22일 총회장 김복철 목사

국제사회에서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

공감대 얻지 못하고, 왕따와 자화자찬인가?



한국교회헌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다. 대북 관계에 관한 것에서, ‘엔드’(E-Exchange-교류, N-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D-Denuclearization-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이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차회담을 통하여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과, 2018년 ‘싱가포르선언’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과도 다르다. 물론 선행되었던 회담에서도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평화 회담이 결렬되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과 교류나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비핵화로 간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흐려질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교류와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상대의 선의(善意)에 기대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현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이다. 저들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교류나 관계 정상화를 쳐다나 보겠는가? 또 결정적인 요인은 한국과의 접촉이 결국 자신들의 체제 붕괴로 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의 한국 대통령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측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면, 회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오늘의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든 것도 한국의 역대 진보정권들이 안일하고 잘못되게 대처한 패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은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번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국민들로서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왜 외교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수궁하기 어렵다. 한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대거 배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은 스스로 미궁(迷宮)에 빠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외교는 국제 무대에서 계속 ‘왕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곳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 만찬에 전 세계 정상들 145명이 초청되었으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과 미국은 절대적이고 전통적인 혈맹이었는데, 어찌하여 이

런 상황이 되었는가?

아주 중요하고, 국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왜 ‘따밤’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호사가들은 언어가 안된다거나 외교적 감각이 없다거나 심지어 국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오죽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때, 유엔총회 회의장에는 참석자들이 대거 불참하여,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외교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반증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대북관’은 두 국가 체제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위헌적인 반 반도 쏘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8월 25일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 ‘동상 협의’를 하고 나서, 정부는 합의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었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두 나라 간 통상 문제는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국 외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국민들로서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왜 외교에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수궁하기 어렵다. 한국의 성공적 외교를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편향성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대거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시각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해체 작업에 들어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외교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정부는 불식(不熄)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축대한예수교 새소망 전원교회 공동체 장로회 목사 임직 감사예배

일시 2025년 10월 13(월) 오후 3시 (본 성전 예배실)

임직자



김대희 목사

임직자 (섬기는 교회)

주소 : 1520 Dun Lo Drive, Arlington Heights, IL, 60004
City of Christian Light Church
(시카고 빛의 도시교회)

담임 목사



곽에스터 목사

교회주소 : 충남 부여군 옥산면 옥산북로 164-43 담임목사 H.P 010-9275-0633 / 010-5596-0632

한기총 임원회, WEA 교류 금지하기로

제36-6차 임원회에서 결의



▲ 한기총 임원회, WEA 교류 금지하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회는 이단 사이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보고에서 “WEA에 관하여 종교혼합주의 및 이단 사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하며 교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한기총은 지난 23일(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6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5명, 위임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회원점명 전, 고경환 대표회장은 ‘운영세칙 제24조(경과조치) 본 운영세칙이 발효되기 이전의 상근직원은 그 정해진 임기가 마치기까지 이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이종직자는 대표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김정환 목사 - 공동회장, 사무총장, 이의현 목사 - 공동부회장, 비서실장

의 이종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김정환 목사는 공동회장에서 물러나고 사무총장을, 이의현 목사는 공동부회장에서 물러나고 비서실장을 각각 선택했다.

이대위 서기 정창모 목사가 보고하며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WEA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가결하고, 김OO 목사, 고OO 목사에 대해서는 ‘회개’의 진정성 부분에 대해 조사 및 자료를 첨부하기로 했고, 전OO 목사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함과 동시에 한기총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질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이첩했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정관운영세칙 개정위원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는 1년, 2회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 ‘임원은 인사위원회(위원장)는 대표회장이고, 증경대표회장 중 3명, 명예회장 중 3명을 임명’에서 임명’하는 것과, ‘사무총장 임기는 3년, 1회 연임에서 1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 부칙으로 ‘1. 총무국장, 행정국장, 행정팀장 외의 사무처 구성원은 대표회장이 급여 지불 및 재정적 책임을 진다. 2. 사무처 재정보고는 임원회에 상세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정관 개정은 대표회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상의하여 진행할 것이니, 언제든지 상의할 내용이 있으면 말

씀해 달라”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관련으로 인터넷에 ‘쇼킹, 한기총’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나 삭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질서위원회에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고경환 대표회장은 김정환 사무총장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가운데, 지난해 급여가 535만 원에서 올해 65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대표회장의 허락도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정관 제36조 ‘2.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총장 면직을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정창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부회장 임호성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결단을 내리고 나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 없다는 것이며, (인간적인 시각으로) 실패라고 해도 실패로 볼 수 없다”며 “그 뜻에 맞는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이전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한기총으로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예장 한영글로벌 제 110회 정기총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총회" 제목으로...



예장 한영글로벌 신임 총회장 이원해 목사



말씀전하는 총회장 박승식 목사



환영사하는 직전총회장 한영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영글로벌측이 지난 9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경인로 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대강당에서 제110회 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게 이원해 목사를 선출했다.

이 총회장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의 복을 나누는 총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총회’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약 220여명의 총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해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글로벌한영측은 1년만에 상당 부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내부적인 쇄신은 물론 한기총 가입으로 교계 연합운동에 함께 동참했다. 또한 최근에는 필리핀제2노회, 영서노회 등을 새로 세우며 부흥의 토대를 구축했다.

직전총회장 한영훈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총회는 위기의 시대를 분별하며 자치만 강한총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 온 총회원이 힘을 모아 필리핀, 몽골, 아프리카, 미국, 일본과 국내 선교에 헌신하고 있으며, 한기총에 가입해 크게 활동하고 있다”며 “내외적으로 우리 총회가 든든한 서가라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다. 다음 회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총회에서는 부총회장 이

원해 목사를 총대원 만장일치로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총회장은 “개교회를 섬기고, 글로벌시대에 총회를 위해 헌신할 시대의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일익을 감당할 것이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영글로벌총회는 서울, 인천, 수도, 강남글로벌 등의 국내 노회와 몽골, 필리핀, 아프리카, 미국, 일본 등 해외노회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한영글로벌총회 제110회기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이원해 목사 △부총회장 주미정 목사 △오동록 장로 △서기 김성기 목사 △사무처기 최선숙 목사 △회계 오은주 목사 △부회계 장형준 목사 △회의록서기 김용현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현숙 목사 △감사 박필훈 목사 △재정목사 △총무 김주홍 목사 △대의총무 김

이에 앞서 직전 총회장 한영훈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서기 김현숙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총회 제1부 개회 예배는 인천노회장 최선숙 목사의 기도, 서서율중앙교회 청년부 특송, 감사 박필훈 목사의 성경봉독(출 40:38), 총회장 박승식 목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총회”란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 말씀을 전했다. 봉헌 찬송 후, 회개 감탄의 목사의 봉헌 기도 에 이어 부총회장 이원해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마친 후 전총회장 강진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예장(기독) 제110회기 총회장에 엄바울 목사 선임



▲ 예장(기독) 제110회 정기총회 총회장 엄바울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총회장 최원길 목사]는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소재, 중흥교회(담임 엄바울 목사)에서 “부흥하는 총회”란 제목으로 제110회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1부 개회예배, 2부 성찬회식, 3부 회무처리, 4부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의장 총회장 최원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3부 회무처리 중, 선정위원장 모종운 목사는 신임 총회장 엄바울 목사의 선임 및 임원 선정을 발



신임 총회장 엄바울 목사

표했다.

이에 앞서 부총회장 기명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정미화 목사의 기도 부회계 차순희 목사의 성경봉독(마 25:20-23), 증경총회장 엄신형 목사가 “충성된 자”란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치,경제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하여”를 부총회장 권정우 목사가, “총회,대회,지교회 부흥과 신학교 발전을 위하여”를 부총회장 송영남 목사가, 동성애 반대, 포괄적차별금지법 저지와 이슬람 퇴치를 위하여”를 피어선대회장 주미정 목사가 각각 특별기도에 이어 증경총회장 진상철 목사의 격려사, 증경총회장 최원석 목사와 김태경 목사 그리고 평택대학교 이동현 총장이 축사를 전했다.

따라서 특별위원장 최원남 목사는 총회장 최원길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총회 총무 송금섭 목사의 광고 후, 총회장 최원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으며, 곧 이어 직전 총회장 모종운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드려졌으며, 3부 회무처리 후, 폐회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후, 신임 총회장 엄바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종료했다.

합동총회 제66회기 신임총회장 서기원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제66회기 정기총회가 9월15일 임마누엘교회(이영희 목사)에서 열려 신임총회장에 서기원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장 서기원 목사는 “목사는 설교와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 가려 애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합

동총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총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총회의 모든 목사님들의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66회기에 모두가 주의의식을 가지고 총회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며 “한기총 소속 교단 중 가장 명품총회, 모범이 되는 총회가 되기 위해 밀알이 되겠다. 겸손함으로 총회를 섬기겠다”고 전했다.

합동총회 제66회기 신임원은 △총회장 서기원 목사 △부총회장 염희정 목사 △부회계 백만기 목사 △서기 최길영 목사 △부서기 이명숙 목사 △회의록서기 이재제 목사 △부회의록서기 강민자 목사 △회계 신은총 목사 △부회계 조일환 목사 △총무 백만기 목사 등이다.

추

2025년도 제110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웨신) 성총회

주제: 성김의 본을 따르는 총회(요 13:14~15)

총 회장

김 안 식 목사
(실만안 물가교회)

부총회장

정성봉 목사
(에브럼드림교회)

부총회장

최둘이 목사
(성막교회)

부총회장/총무

김복래 목사
(공과희망교회)

부총회장

최정수 목사
(일상교회)

서 기

허승무 목사
(더열교회)

부 서 기

심승범 목사
(늘푸른교회)

회의록서기

김기훈 목사
(빛가람중앙)

회록부서기

최혜순 목사
(한소망교회)

회 계

김사라 목사
(무른솔교회)

부 회 계

김은혜 목사
(시온교회)

총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 (02) 835-2606-7 Fax(02) 835-2608(<http://ws333.org>)